

# 연구단체 늘고 토론·논쟁 활발

2000 결산 - 학술

2000년 한 해 동안 국내 불교학계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다. 연구 단체는 늘고, 소장학자의 참여가 두드러져, 예년과 달리 토론과 논쟁이 활발해졌다. 또한 국내 불교학 발전의 초석이 될 기초 연구자도 역시 증가했다. 그럼에도 다른 학계나 주변국 불교학계와의 교류는 부족하고 '종조 논쟁 무용론' 나 '간화선의 현대적 수용' 등과 같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구태를 벗어날 수 없는 한 해였다. (편집자)

● 학술단체 창립 '봄' 올해는 불교 관련 학술단체들이 잇따라 창립되면서 불교학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한 해였다. 3월 한국선학회와 회당학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5월말에는 불교계가 주도하는 장례문화학회 창립했다. 또 불교심리학준비모임, 선어록연구회 등은 올 한 해 동안의 정기 모임을 토대로 2001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새로 창립하는 이들 학회를 비롯해 현재 교계 학술단체는 약 30여 개,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간행하는 학회도 20여 개 이상 된다. 이 중 대각사상연구원,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밀교문화연구원, 정토학회, 전자불전연구원, 불교학연구회 등은 교계 학술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한국선, 밀교, 정토, 진각사상 등 각 학회의 지향점에 따라 연구 방향과 참여 인물

이 다양한 것도 올해 학회들의 두드러진 점 가운데 하나다.

● 불교학 기초 자료 집대성 국내 불교학 발전에 전기를 마련한 '기초자료'들도 집대성되기 시작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한국고승비문총서)을 받았고, 성보문화재단에서도 10년 간의 작업 끝에 (한국의 불화) 1차 완간본을 발간했다. 임기중(동국대) 교수는 (불교가사 원전연구)를 출간했고, 대한불교진흥원은 3년 간의 작업 끝에 (한국사찰의 편역과 주연)을 펴냈고, 국제원효학회는 (원효전서)

영역본 발간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CD로 열람할 수 있는 전산본 (한국불교전서)(전자불전연구소), (고려대장경)(고려대장경연구소) 등도 나왔다. 이러한 기초자료들은 한국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동안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불교계가 학문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 학회·학자 홈페이지 증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불교학계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교계 학술단체는 대략 10여 곳. 한국선학회, 불교학연구회,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연구원, 고려대장경연구소,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인

문대장경 CD 등 자료 구축 연구성과 인터넷 공개 정기학술지 20여개 간행 타학문과 교류 지지부진

도철학회,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원효학연구원, 성철선사상연구원, 선어록연구회 등이 대표적인 사이트이다. 이들 사이트는 자신들의 연구성과를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세미나 일정과 내용을 미리 밝히고 있다. 불교학자들의 홈페이지 운영도 눈길을 끈다. 윤원철(서울대 철학과), 이태승(위덕대 불교학과), 김효성(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 1발표 2논평 체제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에서 전북대 강건기 교수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덕진(고려대 강사) 박사.

평점과 토론 없는 불교학계 세미나 발표회에 '1발표 2논평' 체제가 정착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계 학술대회 모습은 '상의 없는 발표', '형식적인 토론'이 주류였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신진·소장학자들이 세미나에 대거 진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예년 같으면 구색에 불과했던 논평이 활발히 진행됐다.

● 반성과 과제 국내 불교학계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나 시대 연구에 치우친 지금의 불교학계 연구 풍토에서 벗어나 철학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타 분야와 교류하며 우리의 구체적 현실을 화두로 삼아 불교학적 관점에서 재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다. 또한 '종조'나 '간화선' 등 한국 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생도 교계 학술대회의 모습은 '상의 없는 발표', '형식적인 토론'이 주류였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신진·소장학자들이 세미나에 대거 진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예년 같으면 구색에 불과했던 논평이 활발히 진행됐다.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다. 또한 '종조'나 '간화선' 등 한국 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생도 교계 학술대회의 모습은 '상의 없는 발표', '형식적인 토론'이 주류였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신진·소장학자들이 세미나에 대거 진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예년 같으면 구색에 불과했던 논평이 활발히 진행됐다.

## 사찰 편역을 찾아서

② 동산의 범어사 편역

동산 해일(東山 慧日, 1890~1965)은 충북 단양 출생으로 1913년 동래 범어사에서 용성(龍城)을 은사로 득도하여, 평남 맹산의 우두암(牛頭庵)에서 한암(漢岩)에게 사교과를 수학했고, 1917년 범어사 강원의 영명(永明)으로부터 대교과를 배웠으며, 1923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성월(淸月)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금강산 마하연사, 범어사 등의 조실, 범어사 지주였다. 1954년에는 비구 종단의 초대 종정에 추대되기도 하였다.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편역.



○부산 범어사 <원웅정사>편역.

금강계단

당 유공권의 서미 옛보여

원웅정사

민판에 새긴 노건한 선필

걸린 (보재루) 편역이 정면 5칸의 규모와 어울리는 매우 큰 것이어서 작은 편역이 상대적으로 더욱 왜소해 보인다. 편역의 글씨는 당(唐) 유공권(柳公權)의 서미 옛보여는 해서로 굳더기틀 다 떨어내고 근골(筋骨)만 남긴 청경(淸勁)한 글씨이다.

부산 범어사 보재루 우측에 자리한 원웅정사는 1925년에 성월이 증건한 건물로 강원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요담의 앞쪽에 걸린 (원웅정사) 편역은 서법(書法)을 뛰어넘는 동산의 노건(老健)한 선필로 도서나 판지는 따로 없다. 편역의 형태는 액판을 직사각형으로 파내고 글씨를 양각으로 새긴 민판 형태인데, 후에 변죽을 덧붙인 것으로 태두리의 구획이 중복되어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인방인 <대한불교진흥원>

## 문화재 발굴 민간기구 역할 커졌다

조계종 불적조사단 등 10곳 활동 '대학 박물관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최근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 발굴전담기구가 전국적으로 속속 설립되면서 이들이 전체 발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민간 발굴전담법인은 94년 설립된 영남문화재단연구원, 이어 95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사업단, 97년 충청매장문화재단연구원, 경남고고학연구소, 경북문화재단연구원, 98년 경남문화재단연구원, 99년 기전매장문화재단연구원, 호남문화재단연구원, 조계종불적조사단 등이 설립됐다. 올해 들어서는 울산문화재단연구원 이 새롭게 발족했다.

이처럼 최근 민간 발굴전담법인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90년대 후반 들어 대규모 개발공사로 긴급 구제발굴의 필요성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실제 96년 191건에 불과하던 발굴건수가 지난해에는 331건으로 급증했다. 여기에서 발굴 기간과 비용 단축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설립지원도 한 몫을 차지했다. 민간 발굴전담법인들의 발굴 비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발굴건수 331건 가운데 108건(33%)을 이들 법인이 실시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267건 중 102건(38%)을 이들이 맡았다. 이에 대해 최태선(중앙승가대) 교수는 "발굴기간과 용역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어 앞으로 민간 발굴전담기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발굴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발굴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대학과의 역할 분담과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할 분담이 안된 상태에서 민간 발굴전담기구의 증가는 곧 발굴건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이어져 자칫 부실발굴



○기전매장문화재단연구원의 정기도 영주 회암사지 발굴조사 모습.

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대학과 발굴전담기구의 역할분담과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발굴전담기구는 구제발굴을 전담하고, 대학은 특수한 발굴이나 학술목적의 발굴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 '한국불교학' A등급

학술진흥재단 분야별 평가

학술진흥재단이 최근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13개 학문의 분야별 학술지 369개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한국불교학)은 '국제적 수준' (가산학보)는 '우수 학술지' 평가를 받았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내 학술지에 대해 등급을 매겨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번 평가는 A·B·C 등급으로 차등화해 평점을 매겼다. 평가결과 '국제적 수준 또는 국제적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A등급은 112개(30.3%), '국내 우수 학술지'인 B등급이 146개(39.6%), '우수 학술지로 도약단계에 있는' C등급은 111개(30.1%)였다. 이 가운데 불교계 학술지로는 (한국불교학)이 A등급, (가산학보)가 B등급, (대각사상), (보조사상), (인도철학), (정토학연구) 등이 C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 같은 정부 평가에 대한 학계의 일부 견해는 부정적이다. 학술지 등급을 분야별로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30%로 안내해 상대 평가함으로써, 학술지 수준에 대한 검증작업이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분야별로 남적이 안될 만큼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된 사례들도 보이고 있다. 더구나 A등급을 받은 학술지들은 소장학자들에게 대해 진입장벽이 높아 논문조차 게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 "제주 수정사지 복토 후 보존 바람직"

제주대 박물관 보고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도 포함돼 유적훼손 우려와 함께 보존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제주시 외도동 수정사지는 원상을 복토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대박물관은 최근 지난 1998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시굴조사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의 발굴조사 결과를 묶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상태로는 외도동 수정사지의 전체를 복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지만 노출된 유구와 출토된 유물의 가치는 매우 높으며 "발굴지만이라도 원상을 복토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대박물관의 발굴결과 사찰의 규모는 남북 120~150미터 동서 50~60미터 정도이며 12동의 건물지와 도로와 보도, 탑지, 석등지, 담장지, 폐의무지, 적석유구 등이 확인됐다. 특히 '2월수정선사(二月修正禪師)', '목사결만호(牧使兼萬戶)'라고 쓰여진 명문기와와 6~8엽 연관문이 새겨진 숫막대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로 미루어 수정사는 적어도 12세기경에 창건된 탑타의 고찰이지만 18세기 이후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이 시기에 폐할됐으므로 보여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

# 누구라도 붓다를 닮아 해탈에 이른다

가슴에 다가오는 친근한 붓다!

붓다의 바탕이 되는 가르침은 가능한 한 남을 돕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붓다는 자비와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한 마음과 깨진 마음이 곧 해탈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

이 책을 작업하는 동안 내내 붓다의 참모습에 감동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나는 내 눈에 들어와 있던 붓다라는 흐릿한 피사체가 이 책을 통하여 아주 선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실체를 모호하게 했던 결막이 사라지고 생생한 모습이 망막에 투사됐을 때의 기쁨이란 경이로 보지 않을 사람은 모르리라. -<염어의말> 중에서

날마다 가슴에 새겨드는 붓다의 말씀

정찬주 엮음



4\*6 양장, 값 7,500원

정찬주

불교소설 전문작가로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만해 한용운 님의 전기소설 (만해),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집필한 (그곳에 부처가 있다)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는 (암자로 가는 길),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암자에는 물 흐르고 꽃이 피네)가 있으며, 현재 '암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로 있다.

## 이 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다

혼란스럽고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늘 맑고 새로운 정신을 솟아나게 해주는 책!

달라이라마, 닥난, 썸 캠프드, 케리 스나이더, 조에나 메이시 같은 불교계의 위대한 스승들이 선봉이나 명상센터에 국한된 불교가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하는 불교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평범한 사람들도 불교의 관점과 지혜를 일터와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신국판 | 탁난한 의 지음 | 값 9,200원

